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논문 주요어 분석(2002년~2006년)

서 문 경 애¹⁾ · 고 명 숙²⁾ · 김 인 아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행정학회지는 1995년에 처음 발간이 시작되어 1998년 까지 매해 2회씩 발간되다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해 3회씩 발간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매해 4회씩 발간되는 명실공히 간호행정학회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학회의 발전은 학회지의 전문성과 활용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회지 논문의 질 제고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행정학회지는 간호행정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간호행정학회의 기본 이념에 따라 학회지 발간을 진행해 왔으나, 간호를 둘러싼 의료시장의 변화나, 정보학의 발달, 전문직으로서의 도약, 간호창업과 마케팅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바가 없다. 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성옥(2005)이 1년간 논문제재자료를 기준으로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을 분석하였고, 정금희, 안영미, 조동숙(2005)이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를 분석한바가 있다. 그 이전에는 고옥자, 김상혜, 김희경, 이금재와 이영숙(1994)가 학위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하였고,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와 이화인 (1994)가 실험연구

를 중심으로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을 분석한 것이 있다. 이렇듯 학회지를 대상으로 그 학회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활용성에 대한 분석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행정학회지 또한 이제는 매년 대략 50~60편 정도씩 발표되고 있고 학회지가 발간된지 13년째 접어들었으므로 학회지의 발간 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행정학회지가 학술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게재된 논문들의 주요어를 분석하여, 간호행정학회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거나, 앞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파악함과 더불어 사용된 주요어의 연차적인 비교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의 연구방향을 보여주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들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제8권 제1호부터 2006년 제12권 제4호까지의 주요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도별 주요어의 사용빈도를 알아본다.
- 게재논문 주요어의 빈도수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과 앞으로의 연구 추세를 파악한다.

용어의정의

주요어 : 주요어(Key words)

-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2)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ohms@syu.ac.kr)
- 3)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투고일: 2007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15일

● 주요어(Key words)

학술지의 국문 또는 영문초록의 끝에 전체 논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5-10개 정도 기술하여 그 논문의 주제나 방법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논문 주요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2년 제8권 제1호부터 2006년 제 12권 제4호까지 5년간에 출판된 논문들을 분류해 봄으로서, 앞으로 간호행정학회지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발간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학회지 발간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년 2~3회 발간을 했었던 시기는 제외하고 명실공히 간호행정학회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발간된 총 논문수 228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석/박사 학위논문은 26개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학위논문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연도별 주요어의 사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총 686개의 주요어가 게재되었다. 두 번째 단계인 순위별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먼저 이 연구에서의 목적인 학회지 발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어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간호행정학회지 관련 주요어라고 합의된 것과 연구자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주요어의 경우는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를 하여 최종 327개의 주요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어의 빈도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3인의 연구자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도별 논문편수와 총 주요어수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진동재후보지로 선정된 2005년 말을 기점으로 2006년도의 논문편수가 57편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5년간 게재된 총 주요어 수는 686개였으며, 단위논문 당 주요어의 수는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평균 3.01개의 주요어를 수록하고 있었다<표 1>.

간호행정학회지에 5년간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의 순위별 종류와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학회지 발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요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중, 대상자를 나타내는 개념이나 간호행정학회지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 주요어를 제외한 327개의 주요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27개의 분석대상 주요어 중에서 상위 20개를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이 9.4%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나타내었고, 그 뒤로 조직몰입 5.8%, 조직문화 5.8%, 리더십 4.5%, 간호업무성과 4.2%, 임파워먼트 3.4%, 간호서비스만족 3.4% 등의 순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표 2>.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대별 논문의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는 직무만족이 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리더십과 환자분류가 각각 4.4%, 조직문화, 조직몰입, 간호수가, 임파워먼트가 각각 3.3%, 이직의도, 조직유효성, 간호서비스만족이 각각 2.2%를 나타내었다. 2003년도에 이용된 주요어는 역시 직무만족이 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조직몰입과 간호윤리가 7.0%를 나타내

<표 1> 연도별 주요어 사용빈도

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계
논문편수	48	49	38	36	57	228
총 주요어 수 (분석대상수)	137 (90)	146 (71)	112 (55)	118 (51)	173 (60)	686(327)
단위 논문 당 주요어 수	2.85	2.97	2.95	3.28	3.04	3.01

<표 2> 순위별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

(N=327)

순위	주요어(Key words)	빈도(%)	순위	주요어(Key words)	빈도(%)
1	직무만족	31(9.4%)	11	간호수가	8(2.4%)
2	조직몰입	19(5.8%)	12	이직의도	7(2.1%)
3	조직문화	19(5.8%)	13	간호전문직	7(2.1%)
4	리더십	15(4.5%)	14	조직유효성	6(1.8%)
5	간호업무성과	14(4.2%)	15	자율성	5(1.5%)
6	임파워먼트	11(3.4%)	16	마케팅	5(1.5%)
7	간호서비스만족	11(3.4%)	17	정보체계	5(1.5%)
8	환자만족	10(3.1%)	18	간호이미지	5(1.5%)
9	간호윤리	10(3.1%)	19	간호과오	3(0.9%)
10	분류체계	8(2.4%)	20	비용분석	3(0.9%)

<표 3> 연도별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분석 주요어수	90	71	55	51	60				
순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1	직무만족	6(6.6)	직무만족	6(8.4)	직무만족	7(12.7)	직무만족	5(9.8)	
2	리더십	4(4.4)	조직몰입	5(7.0)	조직문화	6(10.9)	조직몰입	5(9.8)	
3	환자분류	4(4.4)	간호윤리	5(7.0)	간호전문직	5(9.1)	간호업무성과	5(9.8)	
4	조직문화	3(3.3)	간호서비스만족	4(5.6)	조직몰입	3(5.5)	리더십	3(8.3)	
5	조직몰입	3(3.3)	환자만족	3(4.2)	간호업무성과	3(5.5)	조직문화	4(7.8)	
6	간호수가	3(3.3)	자율성	3(4.2)	이직의도	2(3.6)	환자만족	3(5.9)	
7	임파워먼트	3(3.3)	간호업무성과	3(4.2)	간호윤리	2(3.6)	임파워먼트	2(3.9)	
8	이직의도	2(2.2)	이직의도	2(2.8)	간호서비스만족	2(3.6)	간호서비스만족	2(3.9)	
9	조직 유효성	2(2.2)	임파워먼트	2(2.8)	간호수가	2(3.6)	정보체계	2(3.3)	
10	간호서비스만족	2(2.2)	조직유효성	2(2.8)	간호 이미지	2(3.6)	간호업무성과	2(3.3)	
11			간호수가	2(2.8)			간호전문직	2(3.3)	
12			간호표준	2(2.8)			간호파오	2(3.3)	
13			비용분석	2(2.8)				환자만족	2(3.3)
14			간호활동시간	2(2.8)					

었다. 2004년도에도 역시 직무만족이 12.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주요어 이었고, 다음으로 조직문화 10.9%, 간호전문직 9.1% 이었다. 2005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주요어의 종류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가 각각 9.8% 였고, 다음으로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각각 7.8%를 나타내었다. 가장 최근인 2006년도의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이 1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더십 10.0%, 조직문화 8.3%, 조직몰입, 임파워먼트, 마케팅이 각각 5.0%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의 경우는 매년 간호행정학회지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용되었다<표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게재논문 주요어의 빈도수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과 앞으로의 연구 추세를 통하여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학회지의 분석 대상을 5년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주요어를 통하여 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분석틀도 없어서 단지 문헌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도별 논문수는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6년에 57편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간호행정학회지가 2005년 말에 학진등재후보지로 격상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투고를 하였다고 사료된다. 5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총 주요어

의 숫자가 686개 였는데, 이중 대상자를 나타내는 개념이나 간호행정학회지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 주요어를 제외한 327개의 주요어를 대상으로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진등재후보지가 되기 전인 4년간의 게재된 논문 중 좁은 의미의 간호행정학과 관련되지 않은 논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석대상에서 과반수의 주요어가 탈락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7개 분과학회지가 대부분 학진등재후보지나 학진등재지이므로 많은 부분이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순위별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이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그 뒤로 조직몰입, 조직문화, 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임파워먼트, 간호서비스만족 등이 간호행정학회지의 게재되는 높은 순위의 주요어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행정학회지가 추구하는 관리내용 중에 내부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간호조직의 업무성과나 이직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결과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직문화와 간호서비스만족이라는 개념들이 간호행정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에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호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으며, 순위별 최상위는 아니지만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개념 중 간호윤리와 간호용어에 대한 분류체계가 간호행정학회지 게재 논문들에 높은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또한 전문적으로 서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전자간호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간호용어에 대한 분류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대별 주요어의 빈도수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의

연도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주요어는 직무만족이었고, 그 뒤로 조직몰입,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가장 높은 빈도수 1~2위를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되게 높은 빈도수를 차지했던 주요어를 제외하고,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환자분류체계와 간호수가, 임파워먼트 등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2003년도에는 간호윤리와 간호서비스만족도, 환자만족도, 자율성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개념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2005년부터는 간호서비스만족도와 마케팅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06년도에는 마케팅, 간호윤리, 정보체계, 간호업무성과와 더불어 간호파오에 대한 주요어가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간호행정학회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요어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십, 조직문화를 제외하고는 그 해에 이슈가 되거나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주요어의 빈도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특히, 2006년도의 경우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로 병원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어가는 시점이어서 간호 영역에서도 간호정보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간호 용어에 대한 분류체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되며,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던 간호파오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간호윤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간호파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병원 조직에서 이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간호윤리와 더불어 파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형성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건대, 간호행정학회지의 주요어에는 비교적 사회현상들을 담아내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간호행정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개념들이 있음을 파악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간호행정학회지의 질과 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진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학술진흥재단에서 평가하는 학술지 체계평가 내용과 내용평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행정학회지가 학술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게재된 논문들의 주요어를 분석하여,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도별 주요어의 사용빈도를 알아보고, 게재논문 주요어의 빈도수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과 앞으로의 연구 추세를 통하여 간호행정학회지의 발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발간된 총 논문수 228개를 대상으로 하였

고, 게재된 총 686개의 주요어 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어는 327개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년간 게재된 논문수는 228개였고 총 주요어 수는 686개였으며, 단위논문 당 주요어의 수는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평균 3.01개의 주요어를 나타내고 있었다.
- 327개의 분석대상 주요어 중에서 상위 20개를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이 9.4%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나타내었고, 그 뒤로 조직몰입 5.8%, 조직문화 5.8%, 리더십 4.5%, 간호업무성과 4.2%, 임파워먼트 3.4%, 간호서비스만족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2년도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는 직무만족이 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리더십과 환자분류가 각각 4.4% 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역시 직무만족이 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조직몰입과 간호윤리가 7.0%를 나타내었다. 또한 2004년도에도 직무만족이 1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직문화 10.9%, 간호전문직 9.1% 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 각각 9.8%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도에는 직무만족이 1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더십 10.0%, 조직문화 8.3%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간호행정학회지에 주요어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간호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토대로 분석틀을 가지고 해 볼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간호행정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주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우자, 김상혜, 김희결,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1060-1991.8), *대한간호학회지*, 24(1), 58-69.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간호계 석박사학위 논문분석-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4(1), 96-114.
- 김문설, 지성애, 박광옥, 김인숙, 박현태 (2002).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통합을 위한 간호관리학 영역의 방향, *간호행정학회지* 8(4), 515-534.
- 장성옥 (2005).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대한간호학회지 논문분석-1년간(2003년 12월호-2004년 10월호)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5(1), 206-212.
- 정금희, 안영미, 조동숙 (2005).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5(7), 1420-1425.

Classification of Keywords of the Papers fro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2-2006)

Seomun, Gyeong-Ae¹⁾ · Koh, Myung Suk²⁾ · Kim, In A³⁾

-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3)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ajor subjects of the recent nursing research in Nursing administration from keywords. **Method:** Keywords of journals were extracted and the frequency of the appearance of each key words was sorted by a descending order. **Results:** A total of 327 key words were used.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wer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Leadership'. Out of them, organizational culture, nursing performance, nursing classification, patient satisfaction, and ethics appeared most frequently in descending order. **Conclusion:** From the above it can be noted that many nursing administration concepts were handled in the papers. But there were not enough pap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administration. It is suggested that in depth research be made on 'Nursing error', 'Nursing informatics', 'Web based learning'.

Key words : Key words

-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h, Myung Suk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6-21, Kong Leung 2-Dong, Nowon-K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6 Fax: 82-2-3399-1594 E-mail: kohms@syu.ac.kr